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남원시가 올 한해도 다양하고 밀도 있는 노인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대상 노인들과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노후생활 가장 행복한 남원

복지시설 ·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 ·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공경 중점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올 한해도 다양하고 밀도 있는 노인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대상 노인들과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시는 전체 인구 8만4,500여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2만6백여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노후를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제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862명의 일자리를 확보했다.

이어 노인들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과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노인대학 운영 등 노후 경제생활과 노인공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입소시설 및 이용시설 본인부담금 지원과 노인 여가활동이 장인 경로당 484개소에 18억6,0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했고 139개소 경로당에는 18억3,400만원의 예산을 투자,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독거노인 1,212명을 선정하여 매주 1회 방문, 2회 전화로 안부확인하고 있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비롯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해 3백여명의 노인들에게 가사·생활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응급안전시스템 202대를 설치, 보호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72명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했다. 독거노인들의 영양 강화를 위해 급식이 필요한 노인 282명을 선정하고 무료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 전북도에 5개소 밖에 없는 승화원과 승화당을 운영하고 있고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위해 6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 총 11억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조성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어서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이 기대되고 있다.

이외함께 남원시는 동절기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시책으로 경로당을 활용한 그룹-홈사업인 ‘두레 사랑방’을 마련, 겨울철 노인들이 경제적·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내에도 노인관련 각종 사업들을 다양하고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인행복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올해 시는 총 예산의 8%인 554억100만원을 들여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건강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안전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분한 뒤 목표를 세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시는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이라는 목표를 통해 노인인구 81%의 지급률로 전국 평균 67% 대비, 14%가 넘는 1만6,700여명의 노인들에게 매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후 경

고창군, 내년 예산안 4928억원 최종 확정

재해위험정비 · 대표관광지 · 생태테마단지 조성 등

고창군의 내년 당초예산안이 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올해보다 12.18%(535억원) 증가한 49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534억원 증가한 4788억원, 특별회계는 1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300억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금·국도비보조금·조정교부금 등 407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는 순세계잉여금 등 32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농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을 위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3.25%인 111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분야는 898억원으로 18.76%를 차지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 592억원(12.4%),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85억원(12.2%), 문화 및 관광분야 266억원(5.6%)순이다.

중점 투자사업으로 구수·건동·금평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138억원),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조성(33억원), 운곡습지 예코촌 조성사업(30억원),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26억원), 고

수농공단지~노동저수지간 도로개설공사(15억원), 철수제 생태테마단지 조성사업(10억원)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도비 신규사업인 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4억원, 갯벌생태계 복원 3억원, 갯벌식물원 조성 5억원, 노동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2억원,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 등 669억원을 확보해 내년, 국·도비 예산은 역대 가장 많은 242억원이 증가한 1981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연초부터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박우정 고창군수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한 노력의 산물로 풀이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친환경쌀, 서울지역 급식쌀 진출 본격화

금천구 소재 학교급식 재료로 최종 선정... 품평회 등 진행

순창군 친환경쌀이 서울시 금천구 소재 학교급식 재료로 최종 선정돼 향후 2년 동안 100톤의 쌀을 납품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 친환경쌀이 서울지역 급식쌀로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금천구는 최근 12일 학교급식쌀 선정을 위해 구청 대강당에서 프리젠테이션과 쌀과 밥맛에 대한 품위 및 시식 등 품평회를 진행하고 순창 태이친환경영농조합법인 등 4개 업체를 2017년도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날 선정된 순창 금과 태이영농조합법인 친환경 쌀 ‘희망햇쌀’은 금과 면지역 선도 농업인들의 계약재배를 통해 납품된 쌀로 신동진비로 품종을 단일화하고 우렁이 등 친환경농법 재배방법을 통일해 미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친환경 생산단지를 통한 생산과 가공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도 실사 평가단의 현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번 선정은 학부모 대표, 시민단체, 구의회 의원 등 다양한 계층의 심사위원이 참여해 잔류농약 검출 여부, 쌀 품위, 밥맛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국 최고의 친환경쌀을 선정했다는 의미가 크다.

태이영농조합법인은 내년부터 2년간 금천구 소재 학교에 2년 동안 친환경 쌀 100톤을 납품하게 된다. 군 측도 품질력이 있는 단체로 연간 70톤 이상, 주회 친환경쌀의 생산·공급이 가능하고 농촌체험프로그램이 가능한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향후 체험프로그램 가능성도 열어 놓은 상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청국장 종균 5종 특허출원

바이오제닉 아민 유전자 없어 안전 · 혈전용해능력 우수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전통장류발효식품으로부터 청국장 종균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수 균주 5종을 분리하고 이에 대한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이번에 특허 출원한 우수 균주는 바실러스 종으로 청국장 적용 및 세포 등의 기능성 연구를 통해 검증했다.

특히 이들 균주는 바실러스 서틸리스로 독소 및 바이오제닉 아민 유전자가 없어 안전하고 청국장의 풍미를 높이고 발효기능이 우수하다. 혈전용해능력이 우수한 특징도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현재 청국장 제조시 사용되는 벗집을 대체할 수 있는 장점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특히

대사성질환 관련 기능성 청국장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전통문화연구개발사업의 일환인 한국형 글로벌 건강 프로젝트를 통해 ‘순창전통 청국장 및 전통발효식품 관련 토착발효미생물에 대한 과학적 우수성을 확보하고 청국장을 세계적인 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하여 순창군은 현재 3만주 이상의 먹는 미생물 연구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1억 이상 가는 산업용미생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순창의 발효미생물산업기반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지자체 선정

임실군은 예비군 육성지원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제2작전사령관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경수 육군 제35사단장은 임실군을 방문해 제2작전사령관을 대신하여 심민 군수와 문영두 의장에게 지난 15일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역 향토방위의 핵심자원인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적극 지원했으며 긴밀한 협

조체제를 구축한 군과 의회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설 물자의 현대화와 교육훈련에 내실을 기하고 지역예비군의 자주국방 의식 배양에 노력했으며 완벽한 통합방위작전 수행 보장을 위해 지역군사령부인 제35보병사단에 예비군 육성 관련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어촌마을 진전대회, 고창장호어촌체험마을 은상 수상

상금 4000만원 받아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주관한 ‘전국 어촌마을 진전대회’에서 고창군(군수 박우정) 장호어촌체험마을이 은상을 수상했다.

장호어촌체험마을은 지난 15일 경남 거제시에서 열린 ‘제 11회 전국 어촌마을 진전대회’에서 ‘발전가능마을’ 분야 은상을 수상해 상금 4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 전국 112개소 어촌마을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9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지평가와 성공 운영사례 어촌마을 진전대회 발표를 통해 장호어촌체험마을이 우수 어촌마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장호어촌체험마을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사해안 최대 생산지의 자랑거리인 노랑조개, 동죽 캐기, 정치망, 대나리 어업체험과, 명사십리 일원의 갯벌버스 드라이브, 해안승마, 갯벌캠핑, 조개 공예체험, 해리 책마을과 연계한 갯벌체험 및 역사문화 축출 프로그램이 타 마을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운영 사례로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모의경찰서

진안경찰, 강추위속 치매노인 발견

진안경찰서(서장 남기재) 동향안천파출소(소장 우재희)는 지난 15일 오후 8시 26분경 치매노인이 마을을 산책하다가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우재희 소장의 신속한 지휘 아래 지역경찰, 타격대, 형사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자율방범대 등 30여명과 함께 마을 주변을 수색했다.

당시 실종 시간도 많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영하권의 강추위로 발견이 조금이라도 늦어졌으면 자칫 잘못됐을 뻔 한 미귀가자는 경계지역인 무주 부남 장안리 누룩골 고개 도로에서 발견되어 기다리고 있는 가족 품에 안전하게 인계됐다.

우재희 소장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날씨에 치매노인, 지적장애 등 사회 취약자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더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경찰, 상습결빙지역 점검

장수경찰서(서장 전준호)는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됨에 따라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해 관내 상습결빙지역에 대한 점검과 교통안전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폭설과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결빙이 예상되는 관내 도로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 점검과 제설장비 확보 등에 대한 점검을 적극 실시했으며, 특히 교량과 그늘진 도로 등 결빙이 잦은 구간의 제설장비 비치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전준호 서장은 “출·퇴근길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사고 예방 등 겨울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경찰, 고입선발고사 교통관리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지난 16일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2017학년도 고입선발고사 시험일 교통혼잡 및 소풍위주의 교통관리로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억양고 등 2개 시험장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 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주요지점 김제역·터미널 앞 2곳에 시험장 착오자 등 긴급한 수험생 발생시 순찰차를 이용해서 시험장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험생 태워주는 곳을 지정 운영 하였다.

또한 시험장 주변 혼잡 완화 및 수험생 입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교통경찰 등을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등 교통관리를 철저히 실시했다.

김수찬 교통관리계장은 “시험장 주변 유동순찰을 실시하여 우발상황에 대비해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말연시 교통질서 확립에 교통경찰 역할을 집중하여 체감치만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실군 을지연습 우수기관 선정

임실군이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2016년 을지연습 전북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도지사 기관표창을 받는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군은 기관장 주관으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차질 없는 연습을 수행하고 연습 분위기 조성 및 공간대 형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군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을 실시했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안보의식 강화와 안보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안보사건 전시, 방북면 및 심폐소생술 체험, 소화기 사용요령 등 다양한 안보·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임실=진홍영 기자